

기독교문연구회 2009 춘계 발표
현길언의 「안과 밖-관계 II」에 나타난
자기 인식을 통한 구원의 길 찾기

문용식(충신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현길언만큼 자기 인식을 통해 구원의 길 찾기에 골몰했던 소설가도 흔치 않다라는 전제 아래 <안과 밖-관계 II>에 나타난 타자의 진실된 삶이 ‘나’를 바로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나’를 바로 세울 때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모, 부부, 부자와의 관계를¹⁾ ‘합’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²⁾

현길언 소설은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주인공들의 현상 이면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소설은 인간의 진실한 영혼의 궤적을 탐구하는 특색을 가진 바,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진실한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지만 삶의 본질에 육박해 들어가 보면 그 허위가 드러나며,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은 시리도록 가슴 아파한다. 본 작품도 <안과 밖>이란 텍스트의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인공이 본질에 접근하자 허위적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슴 아파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도정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본 작품을 통해 주체가 타자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은혜와 교감할 때, ‘나’의 외면의 선한 의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나’의 내면을 발견하며 고민하고, ‘너’에게 다가가 우리라는 ‘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타자의 윤리에 응시할 때, ‘나’의 주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며, 타자의 진실된 삶의 힘이 동력이 되어 집단과 화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길언이 제시하고 있는 타자의 윤리학으로써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언어적 구조물로 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테제이다.³⁾

이제 우리는 현길언의 소설 <안과 밖-관계 II>의 주인공이 타자를 만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부활시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탐구해 보자.

1. 서사 구조, 주체 불안

서사 구조는 단순한 줄거리의 펼침이 아니라 사건들의 연쇄를 언어로 재현한 것이다.⁴⁾ 그것은 개별 텍스트들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⁵⁾, ‘사건들의 의미를 규정하고 연결하여 미적·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법칙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⁶⁾ 본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들의 연쇄 안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인간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이야기가 모든 담론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집결지점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framed narrative)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는 단지 이야기의 사실성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⁷⁾, 바로 삶의 아이러니를 포착하게 하는 신호이고,

1) 이종민, 『용서의 정치학』, 영어영문학연구, 제24권 3호, 1998, p. 253.

2) 현길언, 「안과 밖-관계 II」, 『현대문학』 2008년 6월호, p. 79.

3) 현길언, 『문학과 성경』, 한양대 출판부, 2002, p. 187.

4) Steven Cohan, Linda M. Shires, 임병권·이호 역, 『이야기학의 이론』, 한나래, 2001, p. 123.

5) Steven Cohan, Linda M. Shires, 위의 책, p. 83.

6)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p. 220.

7) 석정경·전승혜·김종갑 편, 『서술이론과 문학비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 380.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작품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는 <안과 밖-관계 II>라는 제목에서 암시받을 수 있는 바, ‘안’의 이야기와 ‘밖’의 이야기와의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내면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안’의 이야기로, 그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과 아내의 이야기는 ‘밖’의 이야기로, 즉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의 구조가 얽히어 서사 구조에 녹아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의 서사 구조는 ‘안’의 이야기 차원이 ‘밖’의 이야기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안’의 이야기인 주인공의 내적 고민이 무엇이며, 그것이 ‘밖’의 이야기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자.

- ① 나와 첫 번째 아내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 ② 나는 유학을 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와 교수가 된다.
- ③ 나는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였다는 소문을 듣는다.
- ④ 나는 아내를 의심하면서 여제자와 만난다.
- ⑤ 목사인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와 이혼을 한다.
- ⑥ 두 번째 아내(여제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지만 속마음은 불행하다.
- ⑦ 나는 제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교수직을 그만 둔다.
- ⑧ 번역 일을 다시 하면서 명성을 되찾아 지방 대학에 임용된다.
- ⑨ 그 학교에서도 재혼 문제로 교수직을 그만 둘 위기에 처한다.
- ⑩ 그 사실을 안 이혼한 아내가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대학 측에 말하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된다.
- ⑪ 사건은 무마되었으나 나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산다.
- ⑫ 이혼한 아내는 50년 간 혼자 살다가 죽는다.
- ⑬ 일흔의 나이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마음으로 나는 요양원에 들어간다.
- ⑭ 의사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을 치유한다.
- ⑮ 그 사이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불행하게 했다는 자책감에 빠진다.
- ⑯ 내가 퇴원하는 날, 아내는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이야기의 순차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⑬에서 주인공 ‘나’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과거의 사건 ④ 때문이라는 것이다. ④는 첫 번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것을 주인공이 의심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의심은 가족의 관계를 행복에서 불행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그 동력의 핵심이 갈등 또는 대립이므로”⁸⁾ 의심은 오해라는 갈등을 유발시키며 불안이라는 심리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이다.

라캉의 말처럼 ‘불안, 그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다. 불안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경험이면서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이다.⁹⁾ 가장 고통스러운 정서가 바로 불안이라고 할 때, ‘나’는 아내를 의심하는 불안의 정서가 찾아오자, 한번 찾아온 그 불안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여 고통을 느끼며, ⑤에서 보듯 아내와 이혼이라는 행위로 이행하고 만다. 행위로의 이행

8)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p. 88.

9)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5, pp. 52-53.

은 타자인 아내와 법적인 단절을 가져오는 동시에 부자간의 관계라는 가족과 관련된 다른 갈등을 파생시켜 연속적인 갈등 관계 속에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한다.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부 관계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윤리적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얼굴, 즉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한 심리적 불안이다. 전자가 주인공의 ‘안’에서 기인하는 불안이라면, 후자는 그 실체가 ‘밖’에서 온 것이다. 내부의 불안과 외부의 불안이 결합하여, ‘나’는 일종의 병리적 현상,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결국 ‘나’는 신경증에 걸려 요양소를 가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안’(마음)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요소를 살펴보자. 불안의 근본 동인은 ‘나’의 자의식 때문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완벽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신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의식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한 겹을 보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시골 가난한 목사의 아들인 나는 도덕적 우월의식으로 가진 자들을 대했는데, 그런 내 자의식이 더욱 크게 발동한 것이었지요(86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목사의 아들인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윤리적으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나’이기에 유학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나’는 아내와 사랑했던 과거를 망각하고,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 과도하게 반응한다. ‘나’는 부부 사이의 사랑의 현존을 완전히 망각하고, 집이라는 공간소에 들어오면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불륜의 표식으로 해석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표출한다. ‘나’는 아내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극심한 불안의 환영에 사로잡히고 만다. ‘나’는 여제자를 만나면서 더욱 더 파괴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아내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신경증인 모습을 보인다. 결국 ‘나’는 목사인 아버지의 극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행위로 이행하고 만다.

다음 밖에서 기인한 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나의 심리적 불안은 밖의 시선을 지나치게 인식한 자의식이라는 무대공포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부부가 합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실성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무대공포증에 빠져 아내의 사랑을 느낄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만다.

세상은 행복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시다.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 다녔어요.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아내가 다른 사내와 묘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85쪽).

주인공은 결국 보이지 않는 얼굴에 굴복하여 충실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이혼을 결행하고 만다. 그리고 주인공은 여제자와 결혼한다. 또 주인공은 결혼한 후에도 ⑦에서 보듯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도하게 반응한 나머지 교수직을 그만둔다. 이와 같이 주인공은 외부 세계의 소문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

두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도덕적 완벽주의는 주인공인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완벽주의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⑧에서 보듯 주인공이 다시 지방 대학으로 임용되어 교수직을 수행할 때 또 다시 주인공의 발목을 잡는다. 전처와 이혼하고 제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은 가정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외관상 개인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가 도덕성의 문제와 직결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인공은 성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당하고 나니, 실력이 아니라, 훼손된 도덕성의 문제를 회복할 길이 막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한국에서 학자로 살아가기는 어렵게 되겠구나, 이 지경에 생각이 이르렀어요. 한국의 교직사회에서는 도덕적 문제, 특히 애정이나 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혼을 만류했던 이유도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96쪽).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얼굴로 인해 주인공이 곤혹해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다른 아닌 이혼한 그의 아내였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아내를 통해 그는 어렴풋한 마음의 짐을 지고 살다가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지는데, 내 이야기는 그렇지 못할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줄곧 생각해온 일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기는 즐거운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하기는 고통스럽다(84쪽).

내 병은 이야기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한다(91쪽).

위의 예문에서 보듯, 아내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신경증적 불안은 그에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재혼한 아내와의 행복한 생활은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재혼한 아내와의 사랑은 과연 주인공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첫째 아내와의 이혼 후 주인공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 아내와의 결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아내를 만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그녀를 만나면서부터이다(91-92쪽).

‘나’는 첫째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면서 생긴 오해보다 둘째 아내를 만나기 시작한 것을 왜곡된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 첫째 아내에 대한 ‘안’의 마음의 불신으로 시작된 주체 불안이 무의식 속에 반영되어 ‘밖’의 소문이 자신의 자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신경증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둘째 아내가 나타나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아내를 만나고부터 인생이 왜곡되었다고 독백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 본 작품의 서사 구조는 안과 밖의 관계라는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서 기인한 안의 불안한 마음이 밖의 도덕적인 완벽주의

를 추구하는 사회에 의해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 현길언은 이러한 서사 구조를 통해 우리 시대 부부들이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부 간의 오해 때문에 발생한 불안 신경증, 이것을 치료하고자 수백 개의 정신 상담소가 새로 지어질 정도로 확산된 것이 시대의 아비투스라고 할 때, 안과 밖의 괴리로 인한 불안 신경증은 후기 현대의 시대적 증후이며 상징이라 할 수 있다.

2. 모순 관계와 ‘합’의 부재

부부 간의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 그 기저에 존재의 특질인 용량(capacity)과 관련이 깊다.¹⁰⁾ 용량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부부가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지, 혹은 부부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사랑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때 부부 간의 삶은 행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의 관계 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부부의 길은 성공과 실패,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결점까지도 담는 것이다.

사실 부부 간의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만약 부부가 관계의 파탄을 겪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너짐이 아닌 삶의 모순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¹¹⁾

부부 간의 관계의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부부 간의 관계는 성애(性愛)를 통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기에 정신적인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수많은 상처를 보듬으며 일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을 욕망의 한계 안에서만 인식하거나, 또는 금기나 도덕적인 문제로 그 의미를 축소해 버린다면, 그 왜곡 현상은 날로 심화될 것이다.¹²⁾ 인간의 성은 단순한 종족 보존의 생산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¹³⁾

텍스트에서 주인공과 둘째 아내와의 관계는 모순 그 자체로 형성되어 있다. 둘째 아내는 주인공과의 관계를 로맨스로 인식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로맨스란 그냥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기에 둘째 아내에게 있어서 주인공과의 만남은 분명히 로맨스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둘째 아내와 그 만남부터가 인생 왜곡의 시발점이었으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계의 모순 속에서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

주인공은 첫째 아내와 이혼하고, 둘째 아내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첫째 아내와 이혼하고 젊은 제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아무리 일에 몰두하며 둘째 아내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려 해도 안의 마음과 밖의 사회적 윤리의 한계 때문에 둘째 아내를 외적으로만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 한다. 주인공은 둘째 아내와 진정한 ‘합’의 관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윤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된다. 그 성찰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10) 『사랑의 각성』, p. 27.

11) 성경 창세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일체성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다. 그 후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 값을 치러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파탄을 맞이한다. 현길언, 앞의 책, pp. 125-127.

12) 현길언, 앞의 책, p. 146.

13) 현길언, 앞의 책, p. 151.

하나둘 끄집어내면서 이루어진다. 주인공은 완벽주의를 추구하였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보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주인공은 아내의 티 대신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모순된 삶이었는가를 인식하게 된다. 주인공은 첫째 아내가 치른 희생과 그녀가 준 선물들을 알게 되면서 죄의식에 젖어든다. 이것은 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올바른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다른 가족, 친구, 동료들의 눈 속에 있는 티 대신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생각하기 시작한다.¹⁴⁾ 주인공은 첫째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둘째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순된 관계, 즉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합’의 부채를 느끼며 신을 찾아 나선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 마음을 두었어요. 내 학문과 인격, 눈에 보이는 행복, 세상으로부터 받는 찬사와 명예, 그것이 내 본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럴수록 내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는 나는 아득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만 하던 하나님께 다가갔지요. 그분은 내 모든 처지를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기에, 오히려 그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분 앞에서면 잊어버렸던 허물과 죄까지 맑은 하늘의 별처럼 가슴으로 물려드는 것이었어요(99쪽).

작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존재의 본모습을 깨닫게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본질적인 성찰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본모습과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처지를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간다. 하지만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하늘의 별처럼 가슴으로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이다.

주인공은 존재의 의미를 더 깊게 추구할수록 그 동안 간과하였던 아내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욱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다가온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주인공에게 심리적 불안은 ‘나’의 문제가 아닌 ‘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부채를 느끼며 바로 어두운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느낀다. 해방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공의 의식을 더욱 지배한다. 바로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후회와 자책감은 순수한 아픔의 결정체이다. 때문에 그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첫째 아내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욕망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외적으로 정당화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벗기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박차고 나설 용기가 없어 또 자신을 정당화하고 후회를 한다.

안이 행복할수록 전처에 대한 미안함은 더했고 위기에서 나를 구해준 그 마음을 갚을 길이 막연했어요. (중략) 왜 재혼하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지요. 얼마나 내가 속이 좁고 이기적 입니까(98쪽)

주인공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14)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탄시킨 선악과 사건이고, 두 번째는 형제의 관계가 파탄된 카인의 살인 사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의 질서의 파탄으로 야기된 죄악이다. 이러한 성의 파탄은 성의 질서가 무시되고, 아리따움을 기준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현길연, 앞의 책, p. 154.

알고, 이혼한 아내에게 용서를 빈다. 모든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삭이며 살았던 첫째 아내, 용서에는 후회와 속죄와 감사가 따른다.

나는 다시 그녀 앞에서 너무 왜소해진 내 자신을 보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몸 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지요. 그 순간 나는 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은 남의 순수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학문에 대한 열정, 사회적인 지위가 제 자신을 아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그만큼 저는 자신에게 너무 정직하지 못했어요. (98-99쪽)

주인공은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자기희생이며, 진심을 다해 삶으로 일구어 내는 것이라는 것을 첫째 아내의 행위를 보고 깨닫는다. 그는 사랑이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 확인(affirmations)한다. 그래서 그는 첫째 아내에게 행하였던 많은 일들에 대한 후회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몸 둘 바를 모르며 아내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마음 속으로 되새긴다. 이제야 그는 첫째 아내의 사랑에 초대되면서 자기의 이기심과 비정직성을 더욱 깊게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는 첫째 아내의 은혜에 초대(invitation)되어 자신이 갖고 있던 자존감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후회와 반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부끄러운 자기 긍정인 후회와 반성¹⁵⁾은,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토대가 된다.

3. 사랑과 죄의 전도(顛倒)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합(막 10:5-9)이다. 어떤 면에서 부부 관계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창조물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진정한 창조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근원지이다.¹⁶⁾ 하지만 부부 관계도 분리와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분리와 통합의 양식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는¹⁷⁾ 원리로 통합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이란 분리의 길을 쉽게 택하기를 좋아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하고, 그 다음 ‘나-그것’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결합시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때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합이 모든 윤리의 근본¹⁸⁾이라고 했을 때, 그 통합은 사랑으로 갈등을 포용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경이로움을 발산한다. 진실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궁극적으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진실한 사랑은 살아 있는 흐름이 되어 죄를 전도시킬 뿐만 아니라 은혜로 가득찬 경이로움에 참여하도록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이 작품에서 첫째 아내의 진실한 사랑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두 아내에 대한 수평적인 전도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수직적 전도

15) 이윤옥, 『비상학, 부활하는 새, 다시 태어나는 말-이청준 다시 읽기-』, 문이당, 2005, p. 93.

16) 이드스 딘, 도환호 역, 『성서적 결혼관』, 요단출판사, 1976, p. 30.

17) 현길언, 앞의 책, pp. 144-145.

18) 현길언, 앞의 책, pp. 171-172.

를 일으키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사랑은 관계를 창조시키는 역동적인 실재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는다. 주인공 ‘나’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째 아내의 행동을 통해 깨닫고 죄의식으로 움츠림 가운데 있다가 진실한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첫째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아내 또한 평생을 혼자 살면서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준 첫째 아내의 진실한 사랑에 경탄한다. 둘째 아내는 ‘나’가 요양원에 들어가 있을 때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모순된 관계로 인하여 충격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이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가를 이해하게 된다.

우선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빌테다(101쪽).

나는 살아온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 고통도 나눠 가질 수 있다(101쪽).

“주님 제 죄를 용서해주시시오. 저는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그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워 그의 모든 것을 탐내었습니다.”(103쪽)

둘째 아내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과 죄가 전도된 것을 인식한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관계를 맺었던 방법이 남편을 유혹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 과연 내가 남편을 사랑하였던 것이 순수한 동기였던가? 둘째 아내는 남편을 만남으로 얻게 된 행복이 첫 부인과의 고통과 외로움을 담보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되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려고 노력한다.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한마디 했다.

“두려웠기 때문이요. 말한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아버지는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104쪽).

인용문에서 보듯, 둘째 아내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았던 남편을 원망한다. 인간관계가 파단에 직면할까 보아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는 남편은 아내의 원망에 또다시 침묵한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언술도 할 수 없는 남편, 그리고 마음에 한 짐 가득지고 남편이 살고 있는 데도 철저히 무방비 상태에서 마냥 행복하게 살았던 둘째 아내, 여기에 삶의 비극성이 있다.

둘째 아내는 요양원에 스스로 찾아들어간 주인공과 달리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자 점점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아들의 말처럼 점점 마음이 흠빛으로 변해 간다. 그녀에게 삶이란 행복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 그것은 뿌리뽑힌 삶의 부유성(浮游性)이다. 사랑하던 남편이라는 존재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성숙한 첫째의 삶에서 느끼는 열등감, 현길연은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의 행복과 불행의 이야기를 교차시킴으로써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둘째 아내 또한 남편처럼 요양원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암시적으로 둘째 아내도 고통과 분리를 통하여 새롭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용서를 비는 대목에서 사랑과 죄의 전도(顛倒)를 읽어낼 수 있다. 주인공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첫째 아내의 사랑에 감동하여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첫째 부인을 용서하라며 이혼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주인공은 부친의 말을 거역하고 이혼을 한다. 그 일로 아버지는 목회 일을 그만두기에 이른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고 예쁜 제자와 결혼한 일은 교수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즈음 목사이신 아버지는, 아내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을 둔 처지에 어떻게 교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권면할 수 있느냐면서 목회를 그만 두었다. 나에게서는 충격이었다(92쪽).

목사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목사인 부친은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목회를 그만 둔다. 그것은 주인공에게 ‘충격’이었고, 아버지에게 불효했다는 자책감에 사로 잡혀 훗날 산행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기에 이른다. 주인공은 용서를 빌면서 후회와 속죄의 마음에 고개 숙인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삭이며 살았던 아내의 사랑으로 촉발된 사랑의 확산에 기인한 것이다. 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부친에게 용서를 빌게 된 것이다.

목회자였던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던 주인공은 수직적 관계에 있는 아들에게도 용서를 빈다. 첫째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것은 죄가 사랑으로 전도되는 극적 순간이었음을 아들에게 밝힌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아들에게 50년 가까이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낸다.

“네 생모가 돌아가고, 그저께 고별예배의식을 마쳤다 하더라. 그동안 재혼도 않으시고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퇴임한 후에는 모은 재산으로 ‘수가성여인의 집’이라는 외로운 할머니 집을 운영하시다가....”

나는 등 뒤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더듬거렸다.

“애비를 용서해라.”

그때 아들은 그 넓은 가슴으로 나를 등 뒤에서 덥석 껴안았다(79쪽).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한다. 아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버지이기에, 아픔을 앓았었지만 아버지의 아픔의 삶을 포용하고 삭인다. 아들은 어머니의 아픔과 어머니가 아파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앓고 있는 아버지,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희생자라고 항변하지 않고 아버지를 포용한다. 아버지인 주인공과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끈 그것은 첫째 부인의 사랑인 것이다.

주인공과 아내들을 둘러싼 수평적인 전도나 주인공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수직적인 전도의 중심에는 주인공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결심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4. 요양소에서 회복의 길 찾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미성숙한 나에게서 빠져나와 성숙한 주체(자아)로 나아갈 수 없으며, 타자와의 관계없이 물질적·정신적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 진정한 자아의 각성이란

타인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유아론적 충동과 의식에 균열이 생겨 ‘남 속의 나’와 ‘나 속의 남’을 새롭게 발견하는 상호주관적 타자와 상호주관적 주체들의 힘겨운 안간힘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¹⁹⁾ 따라서 자아에 대한 치열한 인식은 아름다운 질서 체계 안에서 자아와 타자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²⁰⁾

문제는 안과 밖의 무수한 사건으로 인해 갈등의 집합체인 자아가 언제 ‘남 속의 나’와 ‘나 속의 남’을 새롭게 발견하는 치열한 자아 인식을 표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의 의지와 현실의 사회적 윤리 사이의 모순된 관계 속에서 정신적 방황 및 갈등, 그리고 현실적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치열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갈등이 극심하면 ‘안과 밖, 그 관계 회복의 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의 파탄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 텍스트의 주인공처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불행을 운명으로 돌리거나, 인간사 자체를 부조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은 나와 대상, 내면과 외면, 개인과 사회와의 연관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기울기 쉽다. 이러한 마음은 절대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둘째 아내처럼 자신의 행복했던 시간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열정이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을 생각하며 절망의 막장을 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심각한 병적 징후를 보일 수 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위안을 받을 생각조차 포기하고 만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게 절망의 막장을 넘어가는 길은 없는 것인가?

신앙인들은 그 유일한 방법이 신에게 자신의 과오를 빌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이야기는 병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서사로서 희망과 사랑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성경에는 관계의 파탄의 이야기와 그 파탄을 회복하는 길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파탄까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어떤 파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 보여준다.²¹⁾

목사의 아들인 주인공도 여느 신앙인처럼 절대자를 찾아 용서를 구하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주인공은 타자와 진정으로 교감하지 않는 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주인공은 타자와 교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타자와 교감할 수 없다. 첫째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타자와 교감하고 싶어 요양원이란 공간으로 들어간다. 즉 주인공은 관계 파탄을 회복하기 위해 신에게 그 해답을 찾았지만 오히려 더욱 심각한 정신적 피로움을 느끼자 자기 구원을 위해 요양원에 들어간 것이다. 요양원이라는 공간, “공간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는 갖는다. 공간은 제한과 몰두, 압제, 충동 그리고 그 밖에 우리의 영을 속박하고 제한하는 내적·외적 세력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²²⁾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서 현실에서는 내뱉을 수 없었던 ‘안’의 말들을 쏟아낸다. 주인공은 요양원에서 자신이 얼마나 걱정과 절망감 속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요양원은 재생과 구원의 상징적 공간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주인공은 둘째 아내와 살면서도 매 순간 두려움, 죄책감 등을 억압하며 살았다. 그러나

19)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6.

20) 현길언, 앞의 책, pp. 174-175.

21) 현길언, 앞의 책, p. 183.

22) 제랄드 메이, 앞의 책, p. 141.

주인공은 요양원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동안 억압하고 억제해 온 것들을 다시 자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리고 그 동안 쌓여온 감정들을 만나게 된다. 주인공은 그 공간에서 자신의 영혼 안에 묻혀 있던 억압된 것들을 밖으로 토해내며 거기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만난다. 이렇게 볼 때, 요양원에서의 절망과 구원의 관계는 반의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 관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고통과 치유를 가져오는 재생의 모티브로 기능한다.

주인공은 그 공간에서 완벽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였던 자신 안에 있는 가식과 불안을 토로한다. 주인공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삶의 고통과 깨어짐에 자신을 더욱 드러낼 때, 삶이 사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목사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대중적인 종교의 메시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내적 질환을 치료하게 된다. 주인공은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유(spaciousness)를 갖게 된다.

우리는 첫째 부인의 진실한 사랑을 외면하고 오인하였던 주인공이 내적 성찰을 통해 회개하고 있는 모습에서 안과 밖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주체의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서 빈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문제들 자체를 직시하는 가운데 ‘남 속의 나’를 발견하고, ‘나 속의 남’을 발견하는 길,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주인공에게 보여주었던 진실한 사랑, 아들이 주인공에게 베푼 용서, 주인공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빌었던 용서, 이 모든 것이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삶의 현존을 포착하는 순간들이다. 그 순간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요양원이라는 재생과 구원의 상징적 공간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작가의 주제적 의도는 ‘공간에서 내면을 응시할 때 삶의 고통과 깨어짐에 자신을 더욱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의심의 과정을 거쳐 그것을 토해낼 때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 마음이 평안해 질 수 없다’는 내포작가의 담화론적 전제를 읽을 수 있다. 현길언 작품에 나타나는 대중적 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질타는 현길언 문학의 일관된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